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에 부서지기 모임이 4시 20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4.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가 예배 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5.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6. 3월 교회 재정보고입니다.

-수입: \$36,547.22

-지출: \$ -26,349.20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4일 : 최중훈

16일 : 전미영

17일 : 김지은 / 박상현

20일 : 김태균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강지연 / 설교번역: 강지연

4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 \*향후 교회 일정

- 4월 정기 심방 : 코니 목장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5주)

시편 4편 / 요 10:11-18 / 행 4:5-12/ 요일 3:16-24

교회세운날 2017.6.11

23-15

4월 14일 (부활절 셋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편 135:2-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허민준 자매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4장 3-15절 — 인도자

설교 — 언어를 빼앗긴 자들의 언어가 되어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행복의 비결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에서 N(직관)이 발달한 저로서는 공식을 이해하고 대입하고 적용하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나라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H=C/D 라는 공식을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뭐지? 아 또 공식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H-Happiness, C-Capital, D-Desire 라는 힌트를 드리면 좀 감이 오시나요? 행복은 욕망 분의 자산이라는 공식입니다. 자산(C) 안에는 돈, 재산, 소유 등의 유형의 자산도 있지만 인맥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편리해 졌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회관계망(SNS)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스템 덕에 더욱 편리해지고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갇아 먹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모인 욕망(Desire)이 자산의 증가 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소비가 증가한 만큼 우리들의 욕망은 배가 되었습니다. 아니 소유와 소비를 따르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전에 못 살던 시절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고 관계의 결핍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에 시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의 비결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의 값을 조절하려는 것보다 아예 욕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경쟁을 통해 자산을 확보할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아예 다른 욕망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배제, 혐오를 통해 다른 이를 도태시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포용하고 상생하고 연대하며 환대를 통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Ego를 향했던 욕망의 방향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 타자를 향해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욕망을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천국의 삶이란 타자를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자기 수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가 몸소 보이신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우리의 욕망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욕망하는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소그룹은 바로 이 욕망 재조정의 훈련소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다른 이와 함께 함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환대와 연대, 포용과 공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욕망의 방향을 조정하는 길이 아마 제일 빠를 걸요?